

생활이 모범이 되는 사람을 목사로 세워서 잘 가르치게 함
찬송 331 장

2021-3-6, 토

맥락과 의미

디도서는 디도가 그레테에서 어떻게 목회할 지를 교훈한 편지 성경입니다. 디도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석방된 후, 바울과 함께 그레테 섬에서 선교했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그레테에 남겨 두고 먼저 떠났습니다. 거기 남아서 목사들을 세우고 교회를 조직하게 했습니다. 디도는 나중에 그리스 남서쪽 해안도시인 니고볼리에서 바울을 만납니다(3:12). 바울은 나중에 디도를 그리스 북쪽 달마디아 지역(지금의 보스니아 알바니아)에 파송되어 사역했습니다(딤후 4:10).

디모테 전후서와 함께 사도 바울의 마지막 시기의 편지입니다. 장로들이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설명하는 목회학 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5 절). 장로들을 교회를 돌보는 (감독) 일을 합니다(7 절). 그 때 “장로”의 역할을 목사(가르치는 장로)와 장로(돌보는 장로)가 지금 함께 합니다.

1. 바울 자신의 소개, 인사말: 영생의 복음을 위임받은 사도 바울 (1-4 절)

바울 자신에 대한 소개를 길게 합니다. 디도서는 디도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디도와 함께 그 지역 교회들이 함께 읽을 수 있도록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먼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합니다. 종은 “노예”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므로 권위가 있지만 자기 오직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합니다. 사도의 직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한 믿음을 세우기 위해 주신 직분입니다(1 절). 또한 하나님이 오래 전부터 약속해 주신 영생의 소망을 주기 위해 세우신 것입니다(2 절). 영생의 소망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복음 선포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이 복음을 바울은 위임받았습니다(3 절). “신뢰하기 때문에 맡겨 주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신실하게 복음을 간직하고 전해야 합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를 통해 자신이 위임받은 복음을 디도에게 전해 줍니다(4 절).

2. 디도를 교회의 목사로 인수하여 교회 조직하는 임무를 위임 (5-9 절)

디도를 크레테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남겨진 과제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5 절). 그 남겨진 일은 사도의 지침대로 각성, 도시에 장로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장로”는 가르치는 일과 성도를 인도하는 일을 합니다. 한 도시에는 여러 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도시에 여러 명의 장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장로들은 지금의 목사(가르치는 일)와 장로(성도들 인도하는 일)의 일을 했습니다.

다음에서 말하는 장로는 지금의 목사와 장로입니다. 장로는 전반적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6 절).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을 잘 세워야 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신실해야 합니다. 자녀가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도록 잘 양육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기 가정을 믿음으로 잘 세우는 사람은 영적 지도자로서 검증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의 목사로서 세움을 받습니다.

7 절에서는 장로의 역할을 감독, 청지기라고 부릅니다. 감독은 감시한다는 뜻이 아니라 돌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는 하나님의 집을 맡아서 주인의 뜻대로 이끄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집을 맡아 일할 때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7 절). 성품이 온유해야 합니다. 온유한 성품 때문에 고집세지 않고, 급히 화내지 않고, 구타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술을 즐기지 않아야 합니다. 재정적으로 탐욕이 없어야 합니다. 손님 대접을 잘하고 선행을 좋아해야 합니다.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하는 성품을 갖추어야 합니다. 절제는 소극적으로 어떤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안으로 힘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분노나 탐욕이 마음에서 일어나도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는 성품을 말합니다.

장로는 가르치기를 잘해야 합니다.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지식도 있어야 하지만, 진리를 흔들림 없이 굳게 변호할 수 있는 의지가 강해야 합니다.

”미쁘” 말씀(9 절)은 “말기다(3 절)”와 비슷한 말입니다. 모두 위임받았다는 뜻입니다. 장로는 위임받은 말씀을 잘 보존해야 합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 잘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여기서는 말씀대로 실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르침을 흔들림 없이 굳게 보존한다는 것입니다. 담대하고 굳게 붙들어서 가르쳐야 합니다.

편하게 지식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훈으로 권면도 해야 합니다. 복종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완고하게 거스르는 자들은 강하게 책망하여 변화시켜야 합니다. 장로에게는 분명한 판단으로 다른 사람의 의지를 움직이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반대하는 자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꺾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장로가 했던 가르치는 역할은 지금의 목사가 주로 합니다. 성도를 권면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지금의 장로가 주로 합니다. 목사도 성도를 권면하고 장로도 가르치는 역할을 합니다. 목사 장로는 하나의 목회팀이 되어 성도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며 하나님의 집을 세웁니다.

3. 헛된 말을 만들어내며 복종하지 않는 유대인 할례당의 입을 막으라 (10-16 절)

할례파 사람들, 즉 유대인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칩니다. 디도는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합니다. 그 목적은 그들의 잘못된 이단적 가르침에 현혹된 자들을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구약의 음식 율법을 계속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돼지고기와 같은 어떤 것은 먹지 말라는 규칙을 주었습니다. 돼지고기 자체가 더러운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먹고 싶은 마음을 절제하는 훈련이 유익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훈련하면서, 도둑질이나 거짓말을 하려는 마음을 이기는 힘을 배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규칙을 다 없앴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에는 모든 것을 먹어도 된다고 선언하셨습니다(마태복음 15:11). 사도들도 모든 것이 선하므로 감사함으로 먹으라고 말했습니다(딤후전 4:3).

15 절, 그런데도 어떤 음식은 깨끗하지 못하므로 먹지 말라고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는 당시의 물질은 악하고 정신은 선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가치관의 영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깨끗하게 된 참 성도에게 모든 것은 깨끗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음식을 깨끗함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그 자체로서 깨끗하지만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 것도 깨끗한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의 가르침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원래가 더럽다”고 잘못 주장하는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럽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죄 용서받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성령님 안에서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이런 주장은 단지 그들의 이해력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마음이 비뚤어져 있어서 잘못된 것을 주장합니다. 복종하지 않고, 속이고, 이익을 추구하는 욕심에서 잘못된 지식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을 뒤집는 위험한 자들입니다(10-11 절).

그들은 진리를 반역하는 자들입니다. 단순히 진리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사악함이 이런 잘못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16 절,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합니다. 자기들이 만든 종교적 규칙을 잘 지키는 일에만 부지런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증한 자들입니다. 근본 원인은 불복종하는 마음 때문입니다(16 절).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을 나쁘다고 말하니까 선한 것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들을 바로 사용하며 선한 일을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민고 복종할 일

남편들이 가정을 잘 세우는 좋은 직분자의 자질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직분자가 되기를 탐내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질을 갖추는 면에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목사, 장로, 집사 직분자들이 이런 자질을 잘 갖추도록 기도합니다. 직분자들이 목회 팀으로서 성장하며 교회를 잘 섬기도록 기도합니다. 특별히 목사와 장로들이 협력하여 성도들을 영적으로 잘 이끌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는 것은 자기 욕심과 이익 추구, 교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복음 말씀과 성령님을 의지하여 바른 말씀을 배우고 겸손히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맙시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세상의 좋은 것을 악하게 사용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서 깨끗하게 된 마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선하게 사용합니다.

우리 교회 안으로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목사와 장로에게 지혜주셔서 복음 진리를 잘 지키도록 기도합니다.

조금더생각하기

<참고> 9 절, "미쁜 (피스토스)" 말

이것은 3 절의 "말기다(피스튜오)"와 통하는 말입니다. 모두 위임받았다는 뜻입니다. 위임받은 말씀을 잘 보존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디도서 서론

1. 저자: 바울

2. 수신자: 디도

그는 바울의 전도를 받고 회심했습니다. 바울이 안디옥에서 예루살렘 공회로 떠날 때 함께 가셨습니다(갈 2:1-3). 바울은 그를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태도가 옳다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입증되었습니다(갈 2:3-5)

디도는 신약에서 13 번 나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 3 차 전도 여행 중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서 함께 사역한 듯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세 번 방문했습니다.

첫번째, 바울의 바울의 '눈물로 편지'를 전달한 듯합니다(고후 2:4, 12:17,18). 이 편지는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다.

두번째, 그 뒤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보낼 헌금을 모으는 일을 시작할 때 디도는 위해 자원하여 고린도에 갔습니다(고후 8:6, 16-17).

세번째, 바울은 고린도교회와 관계가 힘들었을 때 다시 디도를 고린도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는 바울에게 돌아와서 고린도 교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전했습니다(고후 2:12-13, 7:6-7, 13-14). 그 기쁨 가운데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썼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다가 풀려난 후 63-65 년 경에 4 차 전도여행을 했습니다. 스페인 등에 전도했습니다. 그 때 바울은 디도와 함께 크레테에서 잠깐 사역을 했습니다(1:5). 디도를 크레테에서 목회하게 했습니다. 바울은 곧 디도의 후임자를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바울은 후임자가 디도에게 도착하는 대로 마케도니아 지역의 니고볼리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3:12),

바울은 임종할 무렵에는 디도를 달마디아로 파송한 상태였습니다(딤후 4:10).

3. 계기와 목적: 바울과 디도가 크레테 섬에서 복음 전도했고, 그 후 디도를 크레테에 남아서 목회하게 했습니다.

디도에게 목회자로서 권한 부여하여 (1:5, 2:1, 7-8, 15, 3:9)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고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할 믿음과 행동에 대해 디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이 편지를 썼습니다.

세나와 아볼로 편으로 편지 보냈습니다(3:13)

4. 저작 장소와 연대: 주후 63-65 4 차 스페인 여행 중

마케도니아서(마테도니아서 만나자고 말하고 있기 때문- 3:13)

디도서 개요

1 장 생활이 모범이 되는 사람을 목사로 세워서 잘 가르치게 함

1. 바울 자신의 소개를 겸한 인사말: 영생의 복음을 위임받은 사도 바울 (1-4 절)
2. 디도를 교회의 목사로 인수하여 교회 조직하는 임무를 위임 (5-9 절)
3. 헛 말을 만들어 내며 복종하지 않는 유대인 할례당의 입을 막으라 (10-16 절)

2 장 지혜롭게 선행을 하며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자

1.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가르치라 (1-10 절)
2. 선행을 해야 할 이유: 천국의 영광의 소망 (11-15 절)

3장 국가에 복종하고 세상의 삶 가운데서 선을 행하라, 헛되고 다툼을 일으키는 종교적 지식을 추구하는 것을 경계하라

1. 국가와 일반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임무 (1-8 절)

삼위 하나님의 구원(4-7 절)

2. 이단적인 사람들과 논쟁하지 말고 한두 번 훈계한 뒤에 멀리하라 (9-11 절)

3. 동역자들의 새로운 배치와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 (12-15 절)